# ISO/TC209(청정실 및 관련제어환경) 국제표준화

생물환경과 공업연구사 채경선 02) 509-7255, chaek@ats.go.kr

## □ 개 요

- 출장 목적
- ISO'TC 209(청정실 및 관련제어환경)총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가하여 청정실 및 관련제어 환경 등 환경관련 국제규격 제정에 대한 아국의 의견을 제시하고
- 최근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KS 업무에 반영하고, 관련기관 업체에 전파하여 환경관련 국제규격 부합화를 추진하고자 함.
- 기간 및 장소 : 2002. 4. 30 ~ 5. 4 (5일간)'미국(Anaheim)
- o 출장자(2명)
- 생물환경과 채경선 연구사
- 한양대학교 안강호 교수

# □ 주요 활동 내용

#### ◆ TC 209/WG 5(청정실 운영)

- 회의일시: 2002. 4. 30(화)~5. 1(수)
- 참가자: 8명
- ㅇ 주요 논의시항

- 청정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에 관해 제정중인 규격(안)인 DIS 14644-5(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 - 제5부 : 운영)에 대하여 7개 국에서 제출한 코멘트를 중심으로 문구 및 내용을 수정,
- 투표를 통하여 ISO DIS 14644-5를 FDIS로 승격하기로 결정

#### ◆ TC 209(청정실 및 관련제어 환경) 총회

- 회의명: ISO/TC209(청정실 및 관련 제어 환경) 제13차 종회
- 회의일시: 2002. 5. 2(목)~5. 3(금)
- 참가자 : 20명
  - 일본, 프랑스, 영국, 미국, 한국 등 14개국의 P 멤버
- → 주요 논의시항
  - Agenda 9.1의 채택에 관한 투표가 있었으며 채택됨.
  - 제12차 ISO/TC209 총회(2000. 5. 덴미크 코 펜하겐) 결과보고
  - 핀란드의 새로운 working item제안으로

"Managing Personnel Cleanroom Clothing" Ad Hoc committee가 생성되었으며 핀란드가 일시적으로 의장을 수행

- ISO/TC209 위원회는 ISO 중앙사무국에 ISO / FDIS 14698-2 문서를 ISO/ DIS 14698-1 이 FDIS로 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구함:
- ISO'TC209 위원회는 WG6이 14644-6안에 14644-8의 용어 및 정의를 포함하도록 함.
-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: 2003년 봄, 이탈라아에서 하며(장소와 날짜는 아직 미정) 내년에한 번 더 총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서 개최키로 잠정결정

## □ 종합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

#### ◆ 종합의견

- 반도체 및 초정밀 부품체조 가공 그리고 제약 및 식품 산업에서 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청정실 및 그와 관련된 장비의 국제 표준 화를 위하여 ISO/TC209가 조직되었으며. 우 라나라는 동분이에 관한 3종의 ISO규격을 KS 화하는 부합화작업을 금년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관련산업계의 관심도 제고 및 기술향 상을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.
- ISO/TC 209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를 통하여 청정분류체계, 청정실 운영, 용어 및 정의, 측정방법 등에 관한 국제 규격 제·개정 작업에

국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분야의 국내규격이 국제규격과 일 치할 수 있도록 하며, 외국의 기술동향을 파악 하고 이를 국내에 보급함으로써 국내산업 발전 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.

### ◆ 향후 조치계획

- TC209 청정실 관련분야의 국제규격 제·개정 에 관한 선진국들의 연구활동 및 국제기준 제 정동향 등을 파악하여 국내 관련기업들에게 전파
- 국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로 바이오 칩의 표면 오염 측정 및 분석 방법이 국내에서 필요한 실정이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. 이번에 신규도출된 clean surfaces(표면청정)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표면오염분야의 국제적 기술표준화 및 기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하고자함.
- TC209 회원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국제표준에 대한 수요를 발굴 및 적극적인 참여로 아국의 의견을 회의에 반영시키도록 노력
-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청정실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기를 발굴하여 국제표준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, 규격 제·개정시 아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있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.